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1076@kiwoom.com



## 미 증시, 대선 불확실성 및 차익실현 압력 등으로 하락

### 미국 증시 리뷰

4일(월) 미국 증시는 미 대선을 앞두고 양 후보 간 초접전이 예상됨에 따라 증시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된 영향으로 하락 마감 (다우 -0.61%, S&P500 -0.28%, 나스닥 -0.33%)

뉴욕타임즈(NYT)의 1일 기준 여론조사 종합 분석에 따르면 경합주별로 해리스 후보는 미시간(약 1%p), 위스콘신(1%p 미만) 등에서 박빙으로 우위에 있으며, 네바다에서는 트럼프 후보와 동률인 상황. 한편, 트럼프 후보는 펜실베이니아(1%p 미만), 노스캐롤라이나(약 1%p), 조지아(2%p), 애리조나(3%p) 등 해리스 후보 대비 경합주에서 소폭 앞서는 모습. 다만, 이 날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트레이드 일부 해소되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약 10bp 하락한 4.28% 기록.

한편,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한 팔란티어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시간외 +13% 급등중. AI 수혜 기업인 팔란티어의 매출액은 7.25억 달러를 기록하며 컨센서스(7.03억 달러)를 상회하였고, EPS 또한 0.10달러 기록하며 컨센서스(0.09 달러)를 상회. 여기에 '24년 4분기 매출액 가이드선도 시장 예상치(7.44억 달러)를 상회하는 7.6억 달러~7.7억 달러를 예상하며 주가는 큰 폭의 상승 시현. 금번 팔란티어 실적을 통해 전반적인 AI의 견조한 수요를 재차 재확인.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가 증산 계획을 재차 연기한 가운데 달러 또한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WTI 유가는 약 2.8% 급등. OPEC+는 기존에 결정한 하루 220만 배럴의 감산을 9월까지만 연장한 뒤 10월부터 재차 생산량을 하루 18만 배럴 늘릴 계획이었음. 다만, 지난 3일 기준의 증산 계획을 12월 말까지 한달 추가로 연기한다고 밝힌 영향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불거짐에 따라 유가는 상승.

주요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M7 종목 중 애플(-0.4%), 마이크로소프트(-0.47%), 알파벳(-1.2%), 메타(-1.14%), 아마존(-1.09%), 테슬라(-2.47%)는 하락한 반면 엔비디아(+0.48%)만 유일하게 상승.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가 상승 영향으로 에너지(+1.9%)의 수익률이 가장 컸으며, 그 외에 유틸리티(-1.2%), 통신(-0.9%), 금융(-0.7%)는 부진한 수익률 기록.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최근 달러, 금, 비트코인 등 자산군 약세, 트럼프 미디어 급락(-30%대) 등에 확인할 수 있듯이, 10월 중 유행 트레이드였던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는 데에 따른 선제적인 재료 소멸 물량(차익실현)이 출회되는 것도 있겠으나, 동시에 대선을 눈 앞에 둔 현 시점에서 누가 될지 가능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가령, Poly Market에서는 트럼프 승리 확률이 높은 반면, Predict it에서는 해리스 승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메이저 베팅 사이트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Real Clear Politics 에서 집계하는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전국 평균 지지율도 두 후보간 동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나, 7대 경합주에서도 해리스가 1%P 이내로 추격하는 등 현재 일간 단위로 대선 전망이 급변하고 있는 상태. 이를 감안 시, 대선 전 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 수일 동안 최종 승자가 확정될 때까지 관련 불확실성이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고용, ISM 신규주문 등 혼재된 결과 속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이후 금투세 폐지 기대감 확대,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 젠슨황 CEO의 HBM 관련 긍정적인 코멘트 등에 힘입어 반등세를 연출하며 금등 마감(코스피 +1.8%, 코스닥 +3.4%).

금일에는 금투세 폐지 기대감, 미국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한 성장주 및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겠으나, 미국 대선을 둘러싼 경제 심리가 심화됨에 따라 지수의 상승을 제약 받는 흐름을 보일 전망.

전일 국내 증시가 코스닥을 중심으로 폭등한 이유 중 하나는 그간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야당 더불어 민주당에서 최근 어려운 시장 환경을 고려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화했기 때문. 이 영향으로 8월 이후 여타 주요국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소외현상과 거래대금 부진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성 중에 있음.

실제로 7월 이후 월간 평균 거래대금을 계산해보면, 코스피는 "7월 12.0조원 -> 8월 10.6조원 -> 9월 10.3조원 -> 10월 9.7조원"을 기록했으며, 코스닥은 "7월 7.4조원 -> 8월 7.5조원 -> 9월 6.3조원 -> 10월 6.0조원"을 기록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 위축세가 심해졌던 상황.

이렇게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와 거래가 부진한 데에는 미국의 침체 우려,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삼성전자 주가 부진 등 매크로와 반도체 특수 요인이 작용한 측면도 있음. 그렇지만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교착상태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중심의 부정적인 수급 환경을 조성한 영향도 무시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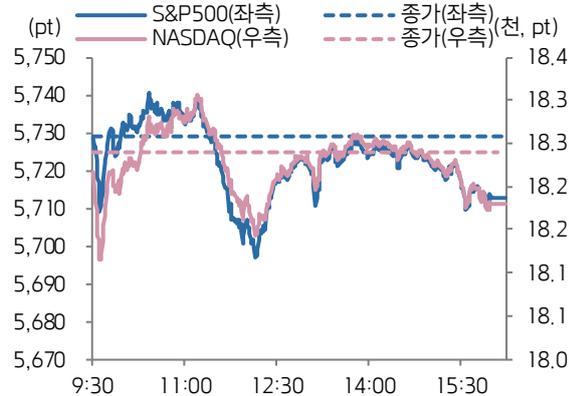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면제구간, 손실이월공제 등 관련 제도 보완 후 도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취지이기는 할 것임. 하지만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도입 시점도 중요했던 만큼, 올해 수시로 부정적인 증시 환경이 조성되고 있던 상황 속에서 금투세 도입을 하지 않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 코스피에 비해 주가 부진 현상이 더 심각했던 코스닥에 회복 모멘텀을 제공하면서, 코스피와 키 맞추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연초 이후 코스피 -4.3% vs 코스닥 -15.9%, 10월 이후 코스피 -2.0% vs 코스닥 -4.6%).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고민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전일 금투세 폐지 소식으로 코스닥이 3%대 폭등했음에도, 거래대금이 6.2조원으로 지난 금요일 5.5조원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것(코스피도 4일 8.0조원으로 지난 금요일 7.8조원 대비 소폭 증가).

이는 1) 미국 대선, FOMC 등 금주에 치러야 하는 대형 이벤트를 앞둔 관망심리, 2) 이번 3분기 실적시즌을 치르는 과정에서 진행 중인 코스피 이익 성장을 둔화 우려(12개월 영업이익 증가율 9월 말 29.4%YoY에서 현재 23.8%로 하락) 등이 거래 활성화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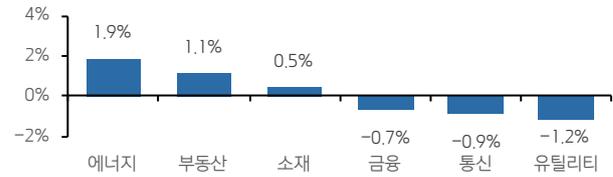
결국 (이익 성장 둔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하지만) 현재보다 한층 더 높은 레벨의 거래대금 증가를 수반한 주가 회복은 대선과 FOMC 이후에 나타날 전망이다. 그 전까지는 단기적인 주가 되돌림 및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주중 대응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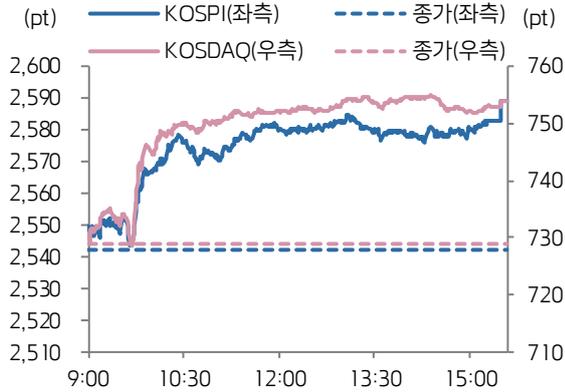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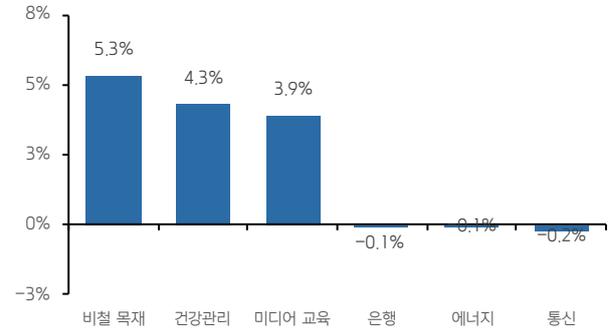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22.01	-0.4%	+15.75%	GM	51.80	+1.65%	+45.38%
마이크로소프트	408.46	-0.47%	+9.22%	일라이릴리	806.14	-1.56%	+38.97%
알파벳	169.24	-1.2%	+21.45%	월마트	82.45	+0.32%	+58.42%
메타	560.68	-1.14%	+58.88%	JP모건	219.78	-1.42%	+32.29%
아마존	195.78	-1.09%	+28.85%	엑손모빌	118.61	+3.18%	+21.68%
테슬라	242.84	-2.47%	-2.27%	세브론	153.97	+0.59%	+6.58%
엔비디아	136.05	+0.48%	+174.79%	제너럴일렉트릭	82.45	+0.3%	+58.4%
브로드컴	168.55	-0.22%	+52.62%	캐터필러	376.52	-0.82%	+29.39%
AMD	140.71	-0.81%	-4.55%	보잉	155.07	+0.31%	-40.51%
마이크론	101.73	+2.01%	+19.56%	넥스트에라	78.37	+1.3%	+31.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588.97	+1.83%	-2.5%	USD/KRW	1,374.50	-0.28%	+6.72%	
코스피200	343.60	+1.81%	-4.02%	달러 지수	103.91	-0.36%	+2.54%	
코스닥	754.08	+3.43%	-12.98%	EUR/USD	1.09	+0.4%	-1.47%	
코스닥 150	1,305.17	+5.17%	-6.34%	USD/CNH	7.11	-0.35%	-0.22%	
S&P500	5,712.69	-0.28%	+19.77%	USD/JPY	152.16	-0.56%	+7.88%	
NASDAQ	18,179.98	-0.33%	+21.11%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1,794.60	-0.61%	+10.89%	국고채 3년	2.932	-1bp	-21.3bp	
VIX	21.98	+0.46%	+76.55%	국고채 10년	3.095	+0.5bp	-8bp	
러셀2000	2,219.03	+0.4%	+9.47%	미국 국채 2년	4.162	-4.3bp	-8.8bp	
필라. 반도체	4,974.00	-0.55%	+19.12%	미국 국채 10년	4.285	-9.9bp	+40.6bp	
다우 운송	16,287.87	-0.39%	+2.45%	미국 국채 30년	4.466	-11.2bp	+43.8bp	
상해종합	3,310.21	+1.17%	+11.27%	독일 국채 10년	2.395	-1bp	+37.1bp	
항생 H	7,367.65	+0.34%	+27.72%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8,782.24	-1.18%	+9.06%	WTI	71.47	+2.85%	+1.66%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5.08	+2.71%	-2.54%
Eurostoxx50		4,852.10	-0.53%	+7.31%	금	2,746.20	-0.11%	+27.13%
MSCI 전세계 지수		835.15	+0.34%	+14.88%	은	32.61	-0.22%	+35.39%
MSCI DM 지수		3,660.03	+0.35%	+15.49%	구리	443.15	+1.37%	+13.91%
MSCI EM 지수		1,122.28	+0.25%	+9.63%	BDI	1,378.00	-0.72%	-34.19%
MSCI 한국 ETF		60.90	+1.47%	-7.07%	옥수수	416.25	+0.42%	-17.33%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69.50	+0.26%	-14.87%
비트코인		66,827.29	-3.31%	+57.21%	대두	997.25	+0.35%	-20.4%
이더리움		2,360.41	-4.39%	+3.42%	커피	244.95	+1.05%	+28.9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